

고용통계 인구 보정 전후 비교

김 종 욱*

1. 머리말

통계청은 지난 2월 고용통계의 표준 가중치에 관한 시계열 보정 자료를 공표했다. 고용통계 작성의 근간이 되는 추계인구가 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고용통계의 모수인구에 보정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고용통계의 모수인구 추정은 추계인구가 근간이고 2015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시, 등록센서스 결과가 새로이 반영되어 보정·공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구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고용통계 모수인구와 추계인구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통계청은 새로운 표준가중치를 산출하고 과거 몇 년간의 공표자료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시계열 보정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2000년 인구총조사 기준 추계인구 공표 시 과거 12년간 시계열을 보정하여 2003년에 공표한 것과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시계열 보정 방식이 표준가중치의 변경이기 때문에 고용통계에서는 모수인구가 변화하게 되고, 모수인구가 변화하면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준이 변화하게 된다. 물론 가중치 수정으로 인해 모수인구의 수준이 변화한다 해서 그간 알려져 왔던 주요 고용지표들의 동향이 완전히 변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는 변화한 가중치하에서의 통계가 공식 고용통계가 되는 것이므로 보정된 기간의 고용동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존에 알려졌던 동향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시계열 보정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가 대상이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고용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우선 적용되어 2018년 2월에 처음 공표되었다. 본고에서는 지역별 고용조사 등 시계열 보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고용통계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시계열 보정에 따른 주요 고용지표들의 전후 비교를 하고자 한다. 먼저 모수인구 변화에 따른 개괄적인 고용동향의 변화를 살펴 본 후, 변화가 비교적 심했던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wkim@kli.re.kr).

취업자 증감에 집중하여 부문별 변화의 특징들을 자세히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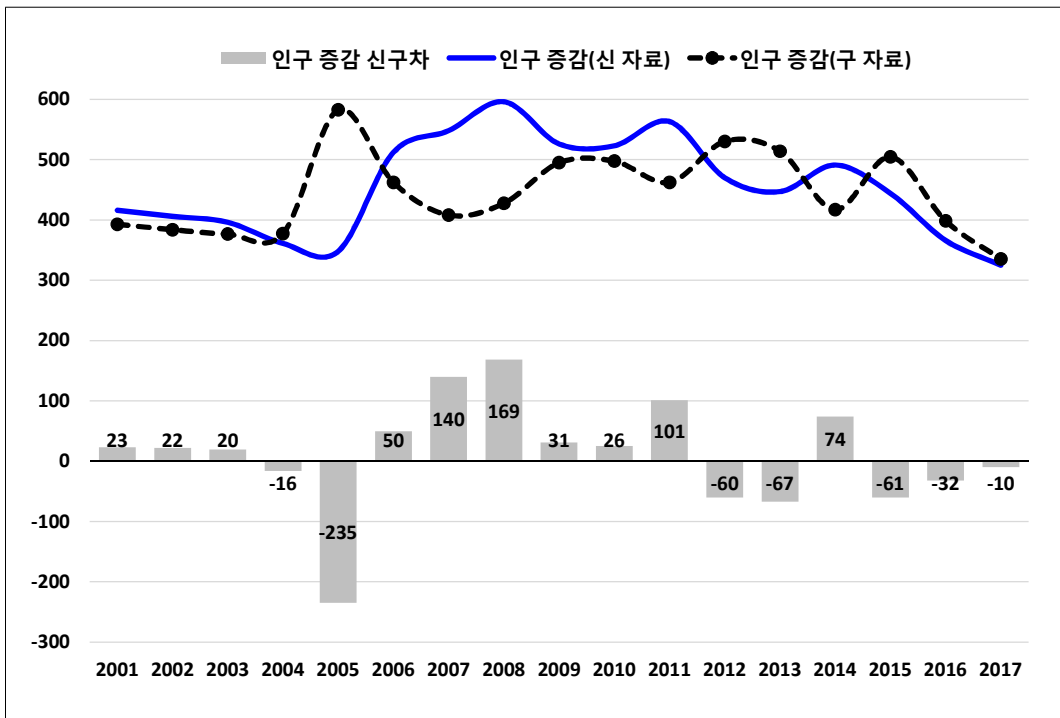
II. 주요 고용지표 보정 개괄

인구 보정 전 자료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는 2000년부터 꾸준히 증가흐름에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인구 보정 후에도 변화가 없으며 2000년 15세 이상 인구 36,192천 명을 시작으로 2017년 43,931천 명에 이르기까지 인구 수준은 계속적으로 증가했다.

한편, 인구 증감은 인구 수준에 비해 보정 전후 차이가 심했다. [그림 1]을 보면 보정 전 자료 기준으로 15세 이상 인구의 증감은 2004년까지 30만 명 후반대의 증가를 기록하다가 2005년에 583천 명의 큰 폭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이후 40만 명대의 인구증가를 반복하며 횡보하다 2016년 들어 인구 증가 규모가 30만 명대로 떨어지는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그림 1]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15세 이상 인구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보정으로 인해 인구증가폭이 상승하는 시기가 2005년이 아닌 2006년으로 변경되었다. 보정 후 자료 기준으로 2005년까지 40만에서 35만가량으로 감소세에 있던 인구증가폭이 2006년에 512천 명, 2008년에는 596천 명까지 크게 늘어났고, 늘어난 폭은 2011년까지 유지되다 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여 2017년 325천 명 증가를 기록했다.

그 결과, 인구 증감의 시계열 보정 전후 차이가 2005년부터 2008년, 2011년에 큰 폭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15세 이상 인구 증가폭 상승의 시기가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늦춰지면서 보정에 의한 증감 차는 2005년에 -235천 명으로 관찰기간 중 가장 컸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늘어난 인구증가폭이 더욱 오래 지속되게 변경된 효과 때문에 보정 전후 인구 증감 차이가 양의 값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시계열 보정 후가 보정 전보다 인구 증가폭이 더 크게 변경되었다. 2011년 이후부터는 보정 후 데이터 기준으로 빠르게 인구 증가폭의 감소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보정 전 데이터에서의 속도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보정에 의해 인구 증가폭 상승의 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늘어난 증가폭이 더 오래 지속된 반면, 증가폭 감소는 더욱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 증감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취업자나 실업자 증감의 변화로 이어진다. 만약 특정 시기에 인구 증가 규모가 매우 커지게 보정되었다면 그 시기에 취업자 및 실업자의 증감 수준도 함께 커질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인구의 규모가 더 크게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인구 가중치 변경으로 인해 인구 증가의 규모가 대폭 줄어든 시기가 있을 경우 해당 연도의 취업자 증가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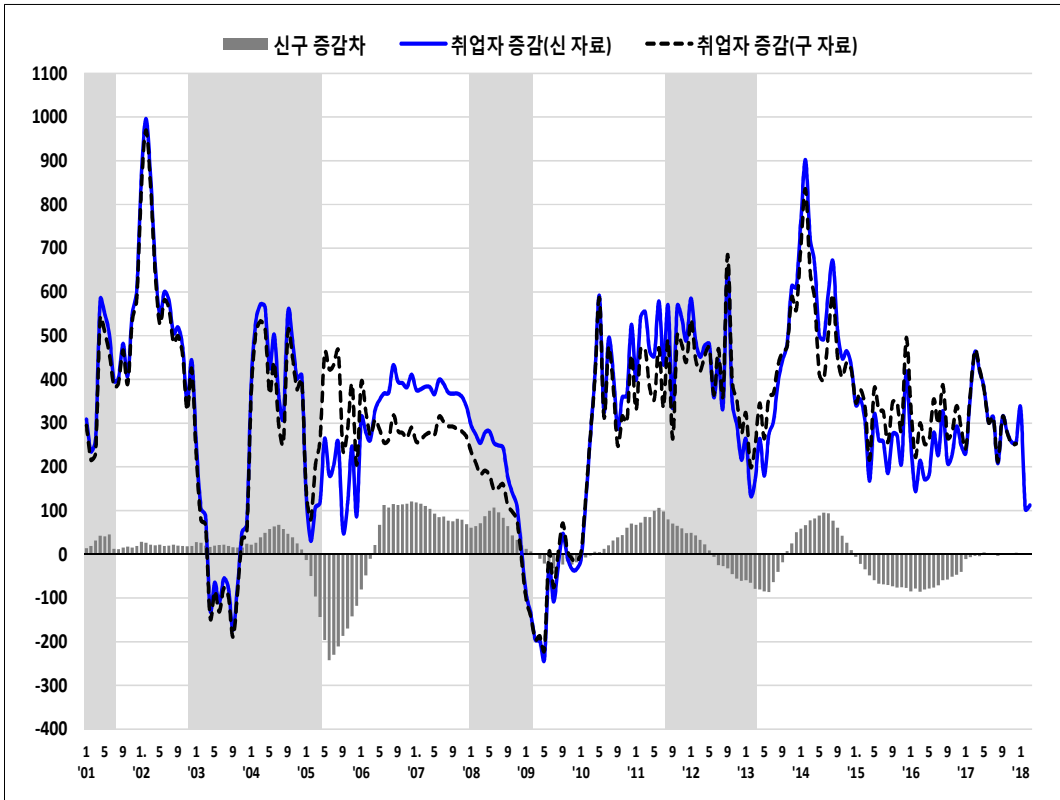
가중치 변경으로 인해 인구 증가폭이 변하면서 실업자보다는 취업자 증감 규모가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취업자 증감은 이번 보정으로 인해 좀 더 뚜렷하게 경기변동 반응양상이 나타나도록 조정되었다. 경기 수축기의 영향을 받는 시기에는 취업자 감소폭이 더욱 커지게, 경기 확장기의 영향 속에서는 좀 더 뚜렷한 취업자 증가가 나타나도록 보정되었다(그림 2 참조).

인구 증가폭 변화가 가장 큰 2005년에는 시계열 보정 전 취업자가 299천 명 증가했다고 기록됐던 반면, 보정 후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149천 명으로 줄어들면서 보정에 의한 취업자 증가 규모차가 가장 컸다. 이는 보정으로 인해 인구 증가폭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가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늦춰졌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2006년의 인구 증가는 더욱 크게 수정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도 보정 전보다 보정 후가 더 크게 추산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8년까지 지속되었고 그 차이는 2006년에 62천 명, 2007년에 91천 명, 2008년에 69천 명에 이르렀다. 그 결과, 보정 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2006년, 2007년에도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 명을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보정으로 인해 해당 시기에는 비교적 양호한 36만, 37만여 명의 취업자 증가가 기록되었다. 2009년은 국제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취업자가 감소한 해인데, 이러한 동향은 보정 전이나 후나 같은 양상이었

[그림 2]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주 : 음영으로 처리된 부분은 기준순환일을 근거로 경기 수축기를 표시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으며 이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을 보정 후가 좀 더 빠르게 벗어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2011년에 보정 전 기준 415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는데, 보정 후 그 규모가 494천 명으로 변경되면서 보정에 의한 취업자 증가 규모차가 크게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에는 인구 증가폭이 최근으로 올수록 보정 전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게 변경되면서 취업자 증가폭도 상당히 하향 조정되었다. 인구가 -61천, -32천 명 하향 보정됨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도 -56천 명, -68천 명 떨어졌다. 이로 인해 보정 전에 2015년, 2016년은 2017년보다 취업자 증가 규모가 컸으나 보정 후에는 2015년 28만, 2016년 23만 명을 나타내면서 2017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 규모가 크지 않았던 시기로 변경되었다.

취업자에 비해 실업자의 변화 폭은 매우 작았다. 실업자는 외환위기 이후 늘어났던 실업자가 금융위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하다 금융위기에 일시적으로 증가했고 최근 들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흐름이 인구 보정 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연도별로 약간의

〈표 1〉 시계열 보정 후(신 자료) 주요 고용지표 수준 및 증감 현황

(단위: 천 명, %, %p, 전년대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15세 이상인구 증감	416 (23)	396 (20)	348 (-235)	548 (140)	526 (31)	563 (101)	447 (-67)	444 (-61)	325 (-10)
경제활동인구 증감	360 (23)	61 (26)	175 (-151)	328 (91)	31 (-17)	433 (83)	327 (-46)	318 (-59)	329 (-4)
취업자 증감	441 (25)	-10 (20)	149 (-150)	373 (91)	-87 (-15)	494 (79)	345 (-41)	281 (-56)	316 (-1)
실업자 증감	-80 (0)	70 (4)	26 (-1)	-46 (-2)	118 (-1)	-61 (4)	-18 (-5)	37 (-3)	14 (-2)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55 (-1)	336 (-5)	173 (-84)	221 (51)	495 (48)	130 (18)	120 (-21)	127 (-1)	-5 (-7)
경제활동참가율	61.5 (0.1)	61.6 (0.1)	62.2 (0.2)	62.2 (0.4)	61.0 (0.2)	61.3 (0.2)	61.7 (0.2)	62.8 (0.2)	63.2 (0.2)
고용률	59.0 (0.0)	59.4 (0.1)	59.9 (0.2)	60.1 (0.3)	58.8 (0.2)	59.3 (0.2)	59.8 (0.3)	60.5 (0.2)	60.8 (0.1)
실업률	4.0 (0.0)	3.6 (0.0)	3.7 (0.0)	3.2 (0.0)	3.6 (0.0)	3.4 (0.0)	3.1 (0.0)	3.6 (0.0)	3.7 (0.0)

주: () 안의 수치는 각 고용지표의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차이를 뜻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실업자 증감 차이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5천 명 이하로 취업자에 비해 작았다. 인구 보정으로 인해 취업자의 변동이 실업자보다 심하다 보니 고용률과 실업률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났다. 고용률은 인구 증가폭의 변화가 큰 해에 미세하게 조정된 반면, 실업률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증감도 인구 보정의 영향을 받았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변동시킬 만큼의 영향은 아니었다.

Ⅲ. 취업자 보정 부문별 변화

인구 보정으로 인한 취업자 증감의 변화를 성별·연령별·연도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기별로는 인구 증가폭 상승 시점이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조정되면서 나타난 2000년대 중후반의

취업자 수 증감 변화와, 인구 증가폭 둔화가 더 빠르게 조정되면서 나타난 최근의 취업자 증가폭 감소 조정이 특징적이다.

전자는 특히 2005년 큰 폭의 취업자 증가폭 감소 조정이 눈에 띄는데, 성별보다는 연령별로 특징적인 모습이 나타난다. 조정이 일어난 주 연령대는 50대 이상 중고령층으로 -136천 명의 조정이 일어났다. 해당 연령대에서 인구 보정이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인구 보정분(-235천 명)의 대부분이 50대(-240천 명)에서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취업자 조정폭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또한 2007년에 나타난 증가 조정(91천 명)은 30, 40대, 그리고 65세 이상에 집중되었는데, 이 또한 해당 연령대의 인구 보정분이 다른 연령에 비해 컸기 때문이다(표 2, 부표 1 참조).

비교적 최근인 2015년, 2016년의 감소 조정은 남성 취업자의 감소 조정이 특징적이다. 보정 전 자료상에서도 남성 취업자 증감은 2014년 266천 명 증가 이후 2015년 132천, 2016년 151천, 2017년 122천 명 증가로 증가폭이 크게 감소되는 양상이었다. 인구 보정 후에는 2014년의 증가폭이 더 커지게, 그 이후의 증가폭 둔화양상이 더 뚜렷하게 조정되면서 2015년, 2016년의 남성 취업자 증감이 비교적 크게 감소 조정되었다. 이에 반해 여성 취업자 수 증감은 기존의 양상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그림 3 참조).

연령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연도별로 취업자 증감 조정폭이 가장 큰 50대 취업자 증감은 보정 전 자료 기준으로는 2005년에 큰 폭의 증가폭 상승이 있는 후 등락을 반복하며 약 25만 명 수준의 증가를 지속하다 2014년 이후 15만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인구 보정 후에는 증가폭 상승의 시기는 조금 늦춰지나 그 폭은 크게 나타나게 변경되었다. 2003년 6만 명을 시작으로 2011년 35만(기존 30만 수준)까지 취업자 수 증가폭이 꾸준히 오르다 2012년부터 증가폭 둔화세가 현재까지 지속 중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2005년에는 50대 취업자 증감의 감소조정이, 2011년에는 증가조정이 일어났다.

30대는 기존의 고용률이 높은 연령대이니 만큼 인구 보정분 거의 대부분이 취업자 증감 조정으로 이어졌다. 보정 전 자료 기준으로 30대 초반 인구는 2014년부터 큰 폭의 감소세, 30대 후반은 2015년 이후 증가세를 보였는데, 보정 후에 30대 초반의 인구 감소세가 더 뚜렷하게 조정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취업자 증감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30대 후반 인구는 보정의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 보정분도 30대 초반에 비해 작았다.

65세 이상은 이번 보정으로 인한 인구 변화분이 비교적 크지만 애초에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 변화분이 취업자 증감의 변화로 이어지는 정도는 약했다. 보정 전 자료 기준으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세에 있었고 2005년과 2012년에 특별히 추세보다 더 큰 증가폭 상승이 있었는데, 보정 후에는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나는 인구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소폭의 등락이 존재하는 추세적 증가양상으로 변화하였다. 이에 따라 취업자 증가폭도 기존 2005년 108천 명, 2012년 160천 명에서 57천 명, 127천 명으로 증가폭을 조금 줄이는 조정이 일어났다(그림 4 참조).

〈표 2〉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취업자 증감 차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대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취업자 증감(보정 후)		441	-10	149	373	-87	494	345	281	316
취업자 증감(보정 전)		417	-30	299	282	-72	415	386	337	317
취업자 증감 신규차이		24	20	-150	91	-16	78	-41	-56	-1
성별	남성	13	15	-90	69	-25	54	-9	-33	5
	여성	11	5	-60	23	10	25	-32	-23	-6
연령별	15~19세	0	1	-2	-1	2	-1	-2	-1	-4
	20대	12	15	6	4	-22	13	-58	-5	15
	20~24세	8	8	21	-13	-18	28	-17	3	13
	25~29세	4	7	-15	18	-3	-15	-40	-8	2
	30대	11	14	13	36	-49	6	-22	-38	-22
	30~34	9	10	21	18	-40	21	-13	-31	-38
	35~39	2	4	-8	18	-9	-15	-10	-7	15
	40대	4	4	-32	42	13	6	1	9	4
	40~44세	5	9	0	13	38	25	11	-4	-9
	45~49세	-1	-5	-31	29	-25	-19	-10	13	13
	50대	2	-12	-68	-11	20	66	35	-28	17
	50~54세	0	-4	-51	-16	32	54	14	-38	19
	55~59세	2	-8	-17	5	-12	12	21	10	-1
	60~64세	1	5	-16	-11	7	9	1	9	-19
65세 이상	-5	-6	-52	32	13	-20	3	-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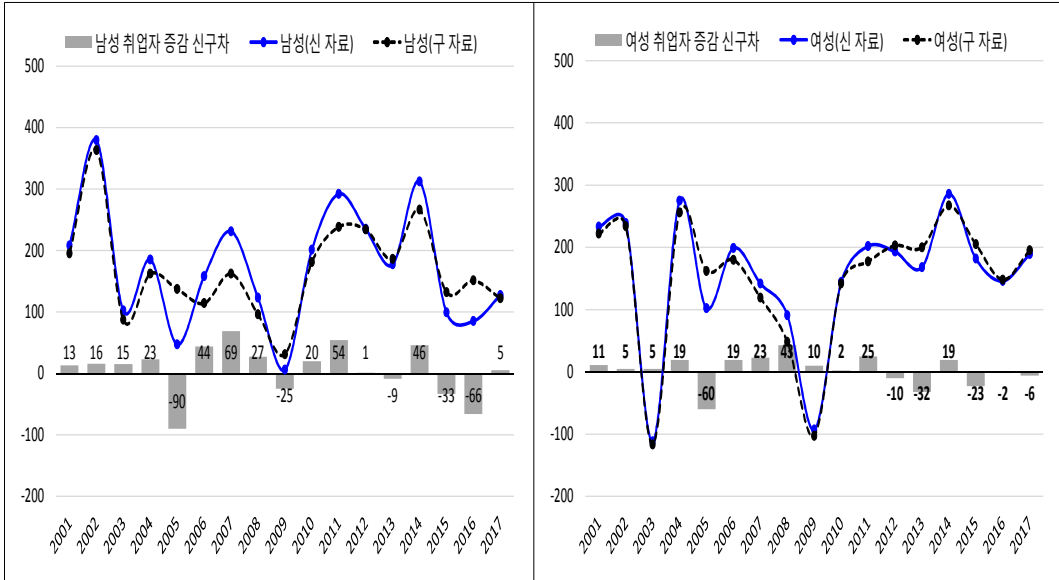
주: 성별·연령별 수치는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각 부문별 취업자의 증감 차이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청년층(15~29세) 내에서는 20대 초반 인구 보정이 가장 두드러졌다. 20대 초반의 경우 학생으로 인한 비경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구 보정분이 취업자 변동으로도 이어지지만 적지 않은 비중이 비경황 증감의 차이로도 연결되었다. 인구가 기존의 감소폭을 늘리는 방식으로 보정된 2008년과 기존의 증가폭을 더 크게 수정한 2011년의 보정이 가장 특징적이다. 해당 변경분이 취업자와 비경황에 고르게 분배되었고 비경황 사유는 주로 학생인구의 변화로 연결되었다.

다음으로 인구 보정으로 인한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취업자 증감의 보정 전후 차이가 크지 않은 해에는 각 산업의 기존 고용비중대로 취업자 증감 변동분이 흩뿌려지는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산업 대분류는 21개로 구성되어 나누어지기 때문에 취업자 증감 변동분이 상당하지 않으면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보정으로 인한 취업자 변동분이 비교적 작아 특징적인

[그림 3]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성별 취업자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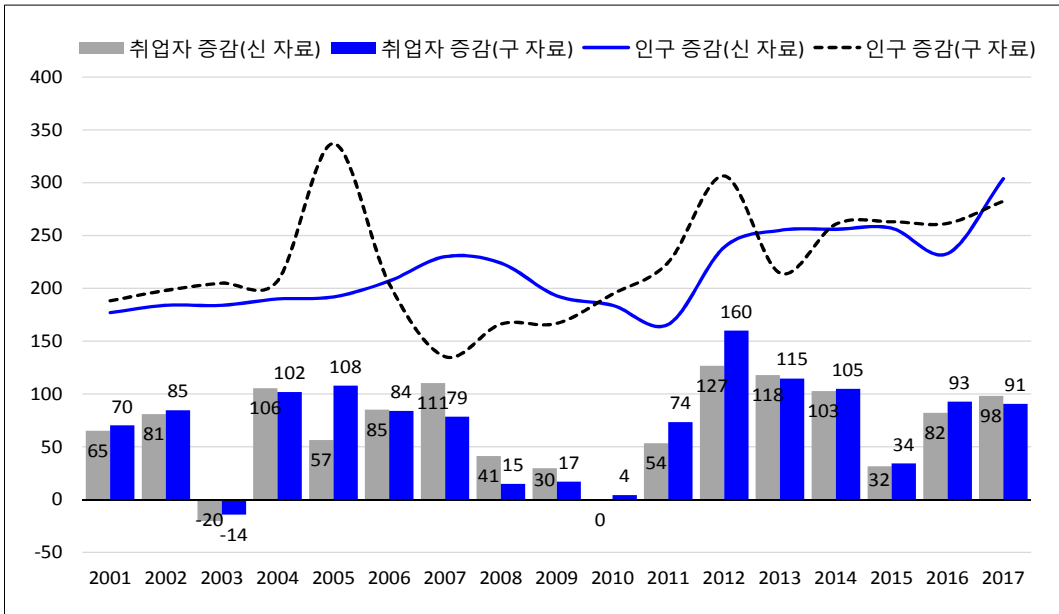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4] 65세 이상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인구 및 취업자 증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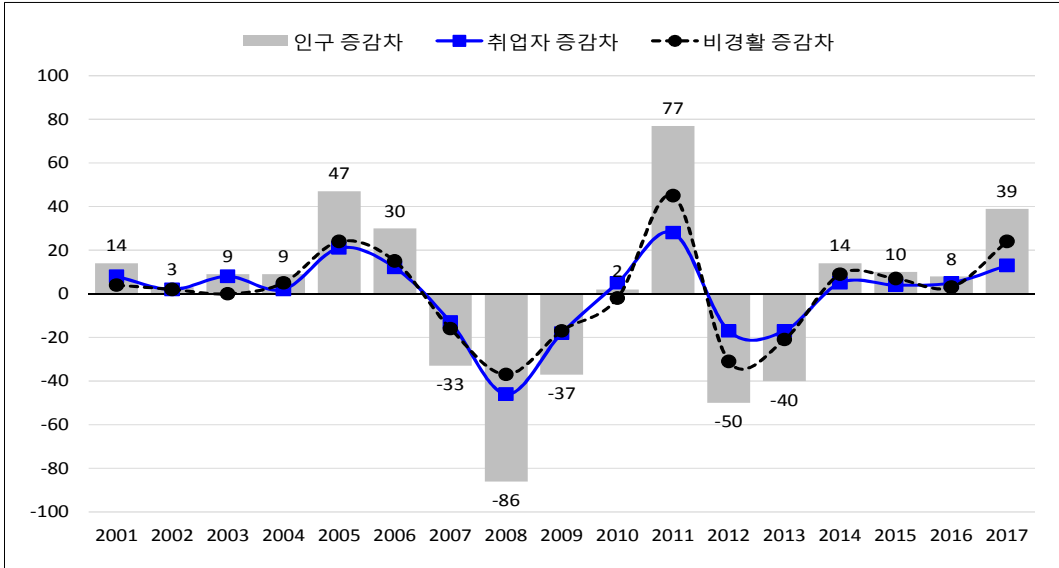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20대 초반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인구 및 취업자, 비경험 증감 차이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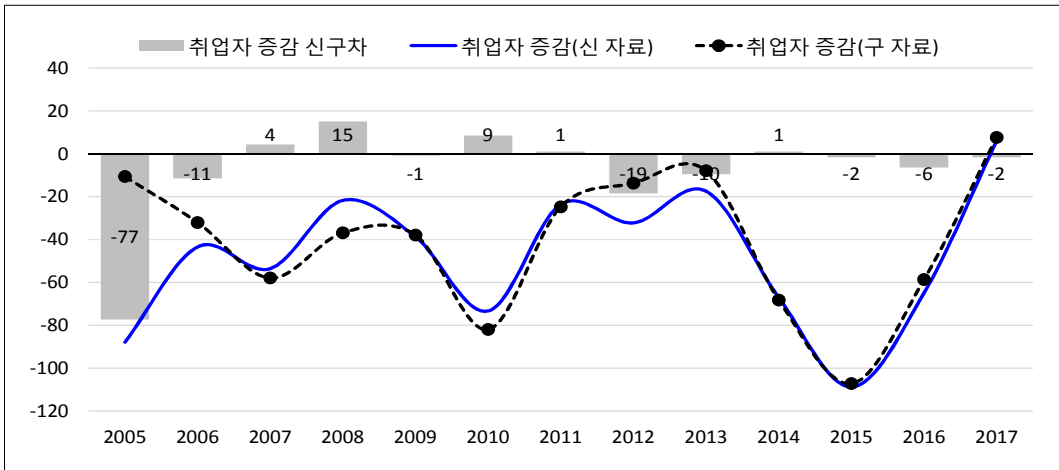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05년 이후 변동분이 큰 산업은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으로 요약되며 농림어업을 제외한 이 산업들은 산업별 고용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한 취업자 변동분이 다른 산업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럽다(표 3 참조).

[그림 6]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농림어업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시계열 보정 후(신 자료) 산업별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전 산업	149 (-150)	373 (91)	-87 (-16)	494 (78)	345 (-41)	281 (-56)	316 (-1)
농림어업	-88 (-77)	-54 (4)	-39 (-1)	-24 (1)	-17 (-10)	-109 (-2)	6 (-2)
광업	1 (-0)	0 (-0)	0 (0)	-4 (-0)	1 (0)	0 (0)	4 (0)
제조업	-63 (-16)	-24 (19)	-131 (-5)	78 (15)	70 (-9)	146 (-10)	-21 (-8)
전기·가스·증기·수도	-1 (-0)	10 (-0)	5 (-0)	-2 (1)	14 (-0)	10 (-0)	-2 (-0)
하수, 원료재생·복원	7 (0)	0 (-0)	6 (0)	6 (0)	-1 (0)	1 (0)	1 (-0)
건설업	-16 (-11)	26 (10)	-94 (-2)	4 (6)	-17 (2)	25 (-2)	119 (4)
도매 및 소매업	-64 (-8)	-24 (14)	-35 (-4)	72 (14)	-37 (-8)	-17 (-9)	41 (-2)
운수업	23 (-6)	59 (5)	-2 (-2)	58 (6)	37 (3)	-1 (-3)	-22 (-1)
숙박 및 음식점업	-8 (-9)	3 (3)	-105 (2)	-29 (7)	60 (-4)	78 (-4)	-3 (-5)
정보통신업	31 (-1)	-14 (3)	21 (-4)	36 (1)	-10 (-2)	55 (-3)	-1 (3)
금융 및 보험업	7 (-1)	23 (2)	-56 (-1)	39 (1)	19 (-3)	-52 (-3)	-11 (3)
부동산업 및 임대업	41 (-3)	7 (1)	12 (0)	-29 (2)	0 (1)	26 (-1)	45 (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19 (-0)	21 (0)	89 (2)	79 (2)	-7 (-0)	18 (-5)	-7 (4)
사업시설지원	52 (-4)	141 (7)	-31 (-2)	67 (3)	58 (1)	68 (0)	-5 (-0)
공공행정	20 (-3)	0 (4)	191 (0)	-8 (1)	12 (-2)	-22 (-1)	55 (3)
교육서비스업	55 (-4)	50 (12)	47 (-1)	-110 (3)	3 (-1)	5 (-6)	45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	50 (0)	62 (3)	156 (1)	166 (8)	150 (-5)	73 (-4)	61 (-1)
예술·스포츠·여가	38 (1)	-8 (1)	-31 (-2)	39 (2)	-19 (-2)	30 (-1)	22 (2)
협회·단체·수리·기타	43 (-6)	77 (4)	-84 (2)	50 (4)	24 (-2)	-25 (-2)	0 (2)
가구내 및 자가	4 (-1)	23 (0)	-3 (0)	5 (1)	5 (-0)	-34 (-0)	-5 (-0)
국제 및 외국기관	-1 (-0)	-4 (-0)	-4 (0)	0 (0)	-2 (-0)	4 (0)	-5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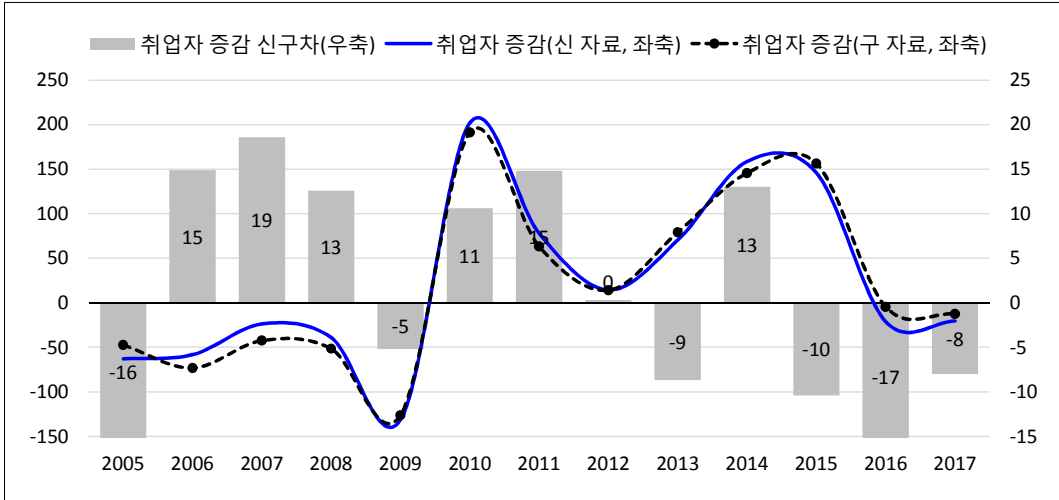
주 : 1) () 안의 수치는 각 고용지표의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차이를 뜻함.

2)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제조업 취업자 증감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농림어업은 산업별 취업자 증감 변동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특징적인 산업이다. 기존에 -11천 명 감소하던 2005년 농림어업 취업자가 인구 보정 이후 -88천 명 감소하면서 감소폭이 매우 크게 조정되었다. 이 같은 변화는 앞에서 설명했던 2005년 인구 보정이 50대 이상 인구 감소폭을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들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5천 명 감소 조정되었는데, 이 연령대에서 고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산업이 농림어업¹⁾인 것을 감안하면 2005년 인구 보정의 연령별 편중이 산업별 취업자 증감 조정으로까지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에 고령층의 인구 보정 정도가 2005년보다 크게 나타나는 해는 없고 그에 따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감 조정분도 비교적 작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건설업은 기존의 취업자 증감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차원에서 조금의 증감 변화만이 나타났다.

VI. 맺음말

인구 보정으로 인한 변화를 요약하면, 먼저 인구 증가폭 상승의 시기가 2005년에서 2006년

1) 경제활동인구조사 시계열 보정 후 2005년 자료 기준 53.0%.

으로 늦춰졌고 늘어난 증가폭이 더 오래 지속된 반면, 증가폭 감소는 보정 전에 비해 더욱 빠른 2011년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증가폭의 둔화 정도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도록 보정되었다. 인구 보정분은 각 연령별 기존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을 크게 변동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졌다. 그 결과, 주요 고용지표인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취업자 증감폭이 2017년에 비해 2015년과 2016년 작아지면서 구조조정, 내수위축 등으로 건설업을 제외한 별다른 호재가 없었던 상황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바뀌었다. 2005년과 같이 특정 연령대(50대 이상)에 집중된 인구 보정이 일어난 해와 같은 경우, 해당 연령대가 다수 분포되어 있는 산업에서의 취업자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의 산업별 취업자 분포에 따라 취업자 변동분이 훌쩍려지는 형태의 변화만이 관찰된다. [KL]

〈부표 1〉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인구 증감 차 성별·연령별 현황

(단위: 천 명, 전년대비)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2017
인구 증감(보정 후)		416	396	348	548	526	563	447	444	325
인구 증감(보정 전)		393	377	583	408	495	462	514	505	335
인구 증감 신규차이		23	20	-235	140	31	101	-67	-61	-10
성별	남성	15	15	-126	81	-6	63	-27	-33	-4
	여성	8	4	-109	59	37	37	-40	-26	-7
연령별	15~19세	1	-1	-6	-23	40	-12	-23	2	-40
	20대	19	21	26	-6	-37	55	-98	-1	36
	20~24세	14	9	47	-33	-37	77	-40	10	39
	25~29세	5	12	-21	27	0	-22	-58	-12	-3
	30대	12	19	22	43	-58	11	-32	-50	-23
	30~34	11	13	33	21	-51	31	-18	-40	-45
	35~39	1	6	-11	22	-7	-20	-14	-10	22
	40대	3	7	-38	51	20	5	3	10	2
	40~44세	5	11	1	14	52	31	13	-5	-13
	45~49세	-2	-4	-39	38	-31	-26	-10	15	15
	50대	0	-17	-88	-4	31	90	44	-35	21
	50~54세	-1	-6	-62	-19	47	70	16	-49	26
	55~59세	1	-11	-25	15	-17	19	28	14	-5
	60~64세	0	10	-7	-19	10	11	0	18	-29
65세 이상	-11	-21	-145	95	26	-59	41	-6	21	

주: 성별·연령별 수치는 시계열 보정 전(구 자료)·후(신 자료) 각 부문별 인구의 증감 차이를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